

# 야간경관 축제 금상 2관왕

### 익산서동축제 · 문화재 야행, 세계축제협회 피너클어워드 한국대회 2년 연속

백제 유등과 야간경관을 핵심 콘텐츠로 담아낸 익산서동축제와 익산문화재 야행이 K-야간경관 축제를 선도한다.

익산시가 지난 9일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익산서동축제는 야간형 축제부문으로, 익산문화재 야행은 야간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 부문으로 각각 금상을 수상하며 2관왕의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축제의 올림피아드'로 불리며 국내 지자체 대표 축제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지난해 서동축제가 야간형 축제 부문에서 금상, 정현을 익산시장은 축제리더상을 수상한 바 있다.

2년 연속 2관왕의 영예를 안은 서동축제는 축제 참여인 코로너19 시집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백제유등과 야간경관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야간형 축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동축제를 주관한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다양한 야간형 축제 프로그램을 해마다 새롭게 개발해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문화재 야행은 백제왕궁 후원 영역까지 그 범위를 넓혀 획기적 변화 속에 진행하며 책임 있는 구성과 질 높은 체험 소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 야행으로 방문객들의 찬사를 받은 점을 인정받아 야간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백제왕궁은 살아있다'라는 부제로 치러진 '2023 익산 문화재야행'은 백제왕궁의 곳곳이 화려한 야간 포토존과 백제복식을 입은 사람들 곳곳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백제문화를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어 흡사 1,400년전 백제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여준 점에서 창의적 행사운영에 대한 가점이 주어졌다.

국내·외 축제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는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IFEA World) 연차총회와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 한국대회는 축제의 총장축제가 열리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됐고, 총회는 문체부와 한국관광

공사 전국 지자체, 축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해 한국의 축제 정책 방향과 국내·외 성공전략을 공유했으며 세계축제의 트렌드와 핫이슈를 주제로 워크숍과 세미나도 진행됐다.

이날 열린 우수사례 및 특별 프로그램 세미나에서 김형훈 경제관광국장도 '축제의 교통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익산서동축제와 문화재 야행을 중심으로 지역 외곽에서 열리는 축제 행사의 성공을 위해 다각진 셔틀버스를 활용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성공사례로 제시하며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정현을 시장은 "서동축제와 익산문화재 야행의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수상으로 국내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강임준 군산시장,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방문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10일 2023년 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비 매입 현장인 옥산농협DSC를 방문해 농업인과 매입 관계자를 만나 농업 고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매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군산시는 지난 7일부터 건조비 매입을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총 5,656.64톤을 매입할 예정이며, 추후 피해비 매입 수요조사도 실시, 별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곡 건조비는 800kg 또는 40kg 단위로 매입하며, 수분이 13.0~15.0%로 건조된 비단 매입하기 때문에 수분관리 철저로 매입 현장에서 불합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동진, 해품 두 가지이며, 품종 검정제를 실시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농가가 실제 출하한

품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의 품종검정 시료 채취 표본 수는 26건이며, 이 중 24건은 출하 농가의 5%를 무작위 추출 후 선정된 대상자고 2건은 지난 2018년 이후 품종검정 위반 농가 중 구제된 농가로 필수 시료채취 대상자다.

채취한 시료는 검정기관에 송부 후 검정을 실시하며, 검정결과 매입 품종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농가 및 동일 주소 거주하는 가족 포함해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문학기행 '서촌 문학길을 거닐다' 진행

익산시가 지역 독서동아리의 문학적 소양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문학기행의 기회를 마련했다.



영등사업도서관은 10일 '독서동아리 문학기행-서촌 문학길을 거닐다'를 진행했다. 익산시가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문학기행에는 도서관에 등록된 독서동아리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운동주 문화관에서 출발해 20개 장소에 흩어진 근현대 문인·예술가의 발자취와 도서관의 역사를 따라 걸었다. 5km 가량을 도보로 걷는 탐방에는 3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됐다.

답사 순서는 △윤동주 문화관·청운문학도서관 △경기상업고등학교·무궁화동산 △청와대사립터·진명여중 △고교터 △이광수 집터·상촌재 △윤동주 하숙집터·박노수미술관 △대오서점·이상의 집 △염상섭 생가·노천명 집터 △청전 이상범 가옥·천경

자 집터 △홍건의 가옥·매동초등학교 △종로도서관·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이다.

참가자들은 한옥 형태로 지어진 청운문학도서관과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종로도서관 등을 직접 눈으로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문학기행은 전주독서대전 등에서 다년간 강의를 진행한 도서관 여행 전문가 백창민 북헌터 대표의 해설과 함께 진행돼 내실을 더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문화재야행, 피너클 어워드 금상·은상 수상 쾌거

### 어린이 프로그램 금상 특별프로그램부문 은상



군산시는 군산문화재야행이 지난 9일 광주 라마다 프라자 충장호텔에서 개최된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한국지부 주최 '2023년도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에서 2개 부문 수상(어린이 프로그램 금상, 특별프로그램부문 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어린이 프로그램은 우리지역 초등학생들이 문화재 해설사가 되어 직접 문화재를 설명한 어린이 문화재 해설사가 들려주는 문화재이야기다. 어린이 문화재 해설사는 지난 군산문화재야행 기간 동안 구 군산세관 본관 등 5개 문화재에 배치돼 관람객들에게 직접 문화재를 해설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은상을 수상한 특별프로그램부문은

'야외문화재교실', '숨은 문화재 보물찾기', '문화재 수다꾼-수다전'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문화재 해설과 함께 연극, 퀴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재 이해를 돕고, 군산문화재 야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들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앞서 지난 3일 대한민국 상품대상에 이어 '피너클 어워드' 수상은 국내 대표적인 야간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인 군산문화재야행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겨울철 상수도 동파 방지 대책 추진

군산시는 동절기 한파로부터 계량기 동파 및 수도관 동결 예방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동파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가오기 전인 이달에는 동파 예방요령에 대한 안내 전단지 제작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수도검침원 등을 통해 수용가에 배포하면서 계량기 보온상대 등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기간에는 동파신고 상황변을 운

영해 동파된 수도계량기 신속 교체와 수도관 동결이나 누수지에 대한 긴급 복구를 추진한다.

수도관 동파로 인한 단수지역에 대해서는 비상 급수차량 지원과 수자원 공사 협조를 받아 병입 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는 수도미터와 노출된 수도관을 보온재 등으로 감싸 얼지 않도록 하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출입문과 창문 등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 통

#### 군산시, 농업인대학 전문과정 졸업식 개최

제16기 군산시 농업인대학 졸업식이 지난 10일 농업인회관에서 졸업생과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농업인대학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내 전문농업인을 목표로 운영되는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스마트농업CEO와 온라인마케팅과정으로 지난 9월 입학식을 시작한 10월까지 총 2회 100여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스마트농업 CEO과정은 온실 내 데이터분석에 따른 환경제어를 할 수 있는 경영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작물 재배의 적절한 환경조성은 물론, 경영비 절감을 통해 농업인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줬다.

온라인마케팅과정은 블로그와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은 물론 1:1 컨설팅을 통한 현장실습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운영

익산시가 학업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어려운 고등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코로너19 이후 4년 만에 재개했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 만 17세 이상 대상자들에게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종합민원과 과금마면·영등2동·남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5명으로 구성된 합동발급반은 지난 8일 전북 과학고등학교를 찾아가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진행했다. 해당 학교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주민센터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시 준비로 주민센터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4년 만에 재개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